

# '1950년 나주 경찰부대사건' 유족 배상 '좌절'

### 현재 "2018년 위헌 결정 이후 소송만 재심 가능" "유족 구제 위한 특별 재심 허용 국회 입법 기대"

'1950년 나주 경찰부대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과 재심, 헌법소원까지 벌였지만 배상을 받을 길이 막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특별 재심을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국회의 입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려는 '나주경찰부대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선 영향이 없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현재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등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나주 경찰부대사건은 경찰관 부대가 1950년 7~10월 해남-완도-진도로 후퇴하면서 경찰 버스를 가리는 등 인민군처럼 위장해 환영대회에 나온 민간인들을 학살한 현대사의 비극으로 일컫는다.

경찰들이 후퇴하던 중 자신들을 인민군으로 오인해 환영한 지역 주민 97명을 사살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현재는 민법의 소멸시효를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7보안법 처벌 사건과 1950년 국민보도연맹사건, 경북 포항 미군함포사건 등)에 적용하는 게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위헌 결정했다.

이에 나주경찰부대 희생자들은 이 현재의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이유는 '헌재법조항' 때문이었다. 헌재법에는 위헌 판정이 내려졌을 때 헌법소원 관련 사건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형벌이 아닌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효력은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될 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족들은 2009

년 패소가 확정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유족들은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했지만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5명 재판관(유남석·이종석·이영진·문형배·이미선)들은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면서 "법 체계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합헌 결정했다.

결국 2018년 현재의 위헌 결정 이전에 나주사건 유족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 재심의

길을 가로막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결과를 낳았다. 현재는 재심 청구가 어려워진 나주사건 유족들을 위해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5·18특별법, 부마민주항쟁특별법, 제주4·3사건특별법 등 재심 사유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둔 법률들을 예로 들면서 "입법론적으로 2018년 위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유족에게 특별 재심을 허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향후 국회의 개선 입법 여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따뜻한 겨울 나세요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이불 나누기' 행사에서 동구지역 134곳 어르신 가정에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이불이 전달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차량 배출가스 단속 오늘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2022년 3월 31일)에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전국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비디오키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구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및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동절기 생활안정 대책 광주 남구 방역체계 구축 등

광주 남구가 최근 지구촌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돌파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등 4개 분야 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남구는 지난 30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석달간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보호와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 안정 및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 38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상 방역대책 상황반, 선별진료소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관내 4곳의 병원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운영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백신 추가접종과 독감예방 접종 지원에 나선다.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해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폭설 및 한파 등 겨울철 재난 대비를 위해 구청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협업부서간 24시간 비상 근무체계가 가동되며, 관내 급경사지 등 취약시설 41개소에 대한 합동점검도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방해' 2심도 무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요

청'을 받은 자료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 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이로써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 쓰레기 줄이기 100일 도전...배출량 26.9% '뚝'

### 광주 동구 100가구 참여

'광주 동구 쓰레기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단'이 1인 1일 평균 배출량 26.9%를 감량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30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운영한 '광주 동구 쓰레기줄이기 100일 도전! 생활실험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모집된 생활실험단은 100일 동안 배출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을 구분·측정하고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 확산시키는 활동을 해왔다.

참가단은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시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

도 감량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지난 8월 쓰레기 줄이기 실험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활실험 100일 과정에 돌입해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100가구가 참여해 ▲감사장 수여 ▲성과공유 ▲주민 생활실험단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임택 동구청장은 "100일간의 쓰레기 줄이기 실험에 함께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리빙랩 실험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과 실험 결과를 동구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적극 반영해 자원순환의 선진모델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